

[아프리카 비즈니스 정보]

에티오피아 의료시장 동향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을 재정비하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티오피아 보건부의 경우 관련 기관 개혁에 앞장서며 전염병, 비전염병 발병 및 확산 방지에 힘을 쓰고 있다. 주요 관련 기관들은 의료품 공급, 분배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세스 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의료시장 동향

에티오피아 정부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티오피아에는 안전한 식수, 주택, 위생, 식품 및 보건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교외 빈곤 지역이 많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중 보건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며 이로 인해 보건 상태는 개선되었지만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호흡기 감염 등과 같은 전염성 질병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높은 출산율에 비해 낮은 피임률로 인해 에티오피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중산층 확대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는 암, 당뇨, 심장병 등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보건부는 제2차 성장 및 혁신 계획과 보건 시스템 혁신 계획에 따라 다양한 측면의 의료시스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 보건 시스템을 지역 보건국 단위로 분산시켰다. 또한 식품의약품관리국(FMHACA) 및 의약품기금및공급기관(PFSA)등과 같은 기관 개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에티오피아 의료시장 향후 전망

식품의약품관리국(FMHACA, Food, Medicine and Health Care Administration and Control Agency)은 에티오피아 시장으로 유입되는 의약품, 관련 물품, 장비 등록, 수입, 품질에 대한 규제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 보건 전문가, 보건 제품 등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의료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약물이 재고 없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관리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관리국은 의약품 등록과 면허 활동을 위한 'Zero backlogs' 전략을 구현 중이다.

의약품기금및공급기관(PFSA, Pharmaceutical Fund and Supply Agency)은 에티오피아 내 의약품, 의료 장비 등을 구매 및 조달하는 기구이다. 제2차 성장 및 혁신 계획 아래 설정된 주요 목표는 향후 에티오피아 전체 보건 시설과 PFSA 분배 중심지 간 근접성 보장, 재고 관리, 정보 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목표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품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020 보건시스템 변화 계획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신생아 및 유아사망률 감소
- HIV 감염을 60%까지 줄이고 아동 발병률 0% 달성
- 결핵 사망자 수와 발병률을 각각 35%, 20% 감소
-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 및 사망률을 최소 40% 까지 감소

현재 에티오피아에서는 1만 6,600개의 의료 시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된 3차 진료소를 건설하고자 한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는 의료 관광 유치에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Ethiopia-Healthcare, 2018,11.05

<https://www.export.gov/article?id=Ethiopia-Healthcare>